

중국의 ‘유산’ 정책과 현실의 상극

- 유네스코에서 ‘전통의 담당자’까지 -

스가 유타카[菅豊]*

번역: 이주현**

(목 차)

1. 들어가며
2. 과열된 중국의 문화정책: 유네스코 ‘유산’을 비켜놓은 국가 정책
3. 고진화(古鎮化) 과정의 문화 보호와 관광 개발: 국가 ‘유산’을 비켜놓은 지방 정책
4. ‘유산’ 제도가 ‘전통 담당자’에게 끼친 영향: 사람들에 의한 어긋남
5. 고진화에 의한 비물질문화유산의 창조: 어긋난 예술, 어긋난 예술가
6. 나가며

[국문초록]

중국은 유네스코가 만든 문화유산의 개념과 제도를 가장 열렬히 수용하고 전략적으로 이 용해 왔다. 중국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호 정책 및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 등에 관한 국내 정책의 정비를 활발히 진행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대응은 유네스코가 상정한 이념, 유네스코가 설계한 제도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여러 국면에서 어긋남을 발생시켰다. 또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둘러싼 움직임에 촉발, 정비된 중앙 정부의 정책에 호응해 지방 정부와 일반인들도 다양한 대응을 취했다. 그러한 대응들 역시 유네스코 문화유산 정책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문화유산 정책과 어긋남을 발생시켰다.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긋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정책 시행자들이 기도해 의식적으로 어긋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 도쿄대학 대학원 정보학 환(環)·학제(學際) 정보학부 교수

** 동국대학교 국문과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문화유산 정책은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불확실한 사회 문화 현상을 산출하고 있다. 문화 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문화정책이 산출하는 상황의 변화는 문화정책을 입안할 때의 상정과 어긋나게 마련이다. 이 글에서는 중국에서 펼쳐지는 문화유산 정책의 이념과 현실의 어긋남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주민에의 영향에 대해 고찰했다.

[주제어] 중국,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문화정책, 불확실성, 어긋남

1. 들어가며

현재 세계 곳곳의 전통문화에 ‘유산(heritage)’이라는 ‘칭호’나 ‘직함’이 주어지고 있다. 근대 사회에서 방치되어 온 전통문화의 가치가 ‘유산’이라는 칭호와 직함, 그리고 그것들을 부여하는 정책과 제도에 의해 ‘발견’되고 있다. 전통문화는 지금이니까 일약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 가치가 ‘유산’으로서 사회에서 인정받게 된 것은 최근 수십 년에 불과하다. 아울러 그 가치는 무의식적으로,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발견된 것이 아니라, 문화의 글로벌 정치 아래서 의식적으로, 작위적으로 조작되어 구축되어 온 것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문화를 ‘유산’으로 파악하는 사고방식이 세계의 주류가 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 그리고 이 사고방식은 유네스코가 개입된 문화의 글로벌 정치에서 양성되었다. 다만,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네스코가 문화정책을 이제 막 수행하는 단계에서는 ‘유산’이 아니라 ‘재물[財, property]’로서 전통문화를 평가하였다.¹⁾ 이처럼 전통문화를 ‘재물’로 파악

1) 七海ゆみ子, 『無形文化遺産とは何か: 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産を新たな視点で解説する本』(彩流社, 2012); 菅豊, 『文化遺産時代の民俗学: 『間違った二元論(mistaken dichotomy)』を乗り越える』, 『日本民俗学』 279(日本民俗学会, 2014), 33~41쪽. 예를 들어 195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이 체결되었고, 또 1980년에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이 체결되었다. 이 두 협약의 조문을 보면, 여기서 대상이 되는 문화는 ‘문화재(cultural property)’로 표현되어 있다. 이 협약들은 회화나 조각 등과 같은 유형의 ‘우수하고’ ‘아름다운’ 미술품과 훌륭한 물건을 조정(指定)한 까닭에, 그 시대 사람들은 문화를 ‘재물(才物)’로 간주한다는 것에 그다지 위화감을 갖지 않았겠다.

하는 사고에서 ‘유산’으로 인식하는 사고로의 전환은 1970년대에 크게 진전되었다.

특히 세계 각국의 문화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준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이 1972년에 체결된 이후, ‘재산’에서 ‘유산’으로의 전환과 같이 전통문화를 파악하는 방식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2001년에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이 채택되었고, 제1회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이 선언되었다. 그리고 2003년에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이 체결되어 ‘유산’이라는 틀이 무형문화로도 확대되었다. 그 후 ‘유산’을 둘러싼 글로벌 정치가 세계 각국의 문화정책을 포함한 정치, 문화, 지역 사회에 수많은 영향을 미쳤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유산’ 개념과 그 제도를 가장 열렬히 수용하고 또 가장 전략적으로 이용해 온 국가는 본문에서 다룰 중국이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보호 정책과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때, 중국 정부는 그러한 문화정책으로부터 다대한 자극을 받았다. 그리고 ‘유산’과 관련한 국내외의 대응을 현저히 활성화시켰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은 그야말로 ‘문화유산 시대’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내외를 향한 중국 정부의 대응은 유네스코가 설계한 정책, 제도, 이념과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았다. 그것은 다양한 국면에서 어긋남과 엇갈림을 초래하였다. 또 유네스코 ‘유산’을 둘러싼 움직임에서 촉발, 정비된 중국 정부의 ‘유산’ 정책과 제도는 국내의 지방 정부와 ‘전통의 담당자’들까지도 크게 촉발하였다. 그 결과 지방 정부와 전통의 담당자들은 ‘유산’ 정책과 제도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적응하였다. 그러한 적응 또한 유네스코의 ‘유산’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의 ‘유산’과 어긋남을 초래하게 되었다.

정책과 제도를 수행하고 수용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론 정책과 제도의 실행자나 수용자들이 기도하고 의식하여 그것을 ‘어긋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문화정책과 현실의 ‘어긋나는 혹은 어긋나게 하는’ 실정 때문에 ‘유산’이 존재하는 중국의 제(諸) 지역에서는 불확실성을 띤 문화 상황, 사회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문화정책과 제도를 실제 사회에 적용할 때, 그 정책과 제도로 인한 결과를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즉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 낸 상황 변화와 영향, 그리고 결과라는 것은 흔히 정책과 제도를 수립할 때에 상정되어 있었던 것과 어긋나게 마련이다. 본론에서는 그러한 어긋남과 어긋나게 함에 따른 문화정책과 제도, 그리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대응에 관해 중국의 ‘유산’ 정책과 제도를 둘러싼 현상을 소재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국가 간 차원의 주요 행위자인 유네스코를 기점으로 규정된 ‘유산’ 개념과 정책·제도에 대해 국가 차원의 행위자인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상황을 해설한다. 다음, 그것들을 중국적인 국내용의 ‘유산’ 정책과 제도로서 적극적으로 치환하는 상황을 밝힌다. 나아가 국내 정책, 제도를 다시금 치환하여 지방의 문화정책으로서 응용, 전개하는 지방 차원의 행위자(지방 정부), 그리고 그 정책과 제도에 휘말리거나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치환해 나가며 참여하는 개인 차원의 행위자, 곧 전통의 담당자가 변화하는 상황을 관광 개발이 진행되는 작은 지역에서 고찰한다. 이 모든 것들이 문화정책과 제도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어긋나거나 어긋나게 하는’ 현상이다.

본론에서는 유네스코가 사용하는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를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용어로 표기하고, 중국 제도의 고유 명칭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비물질문화유산’이라는 용어로 표기한다. 무형문화유산도 비물질문화유산도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의 번역어로 원래대로라면 같은 개념일 것이다. 그러나 양자는 서로 같지 않다.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라는 용어와 개념이 중국과 일본 양국에 수용된 후 각각의 국내 문화정책과 관련되어 특징을 띠게 되는 단계, 즉 어긋나고 어긋나게 하는 단계에서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의 번역 개념은 각국 정부의 사정과 의도에 따라 독자적으로 변주된다. 그래서 무형문화유산과 비물질문화유산은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우선 확인해 두겠다.²⁾

2. 과열된 중국의 문화정책: 유네스코 ‘유산’을 비껴놓은 국가 정책

문화유산 시대의 도래를 맞이하여 중국 정부는 유네스코 ‘유산’을 둘러싼 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의 세계유산(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을 살펴보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³⁾ 건수는 2014년 8월 당시 47건으로 이탈리아(50건)에 이어 세계 2위의 등재 건수였으나,⁴⁾ 2020년 2월 시점에서는 55건으로 증가하여 이탈리아와 나란히 세계 1위의 등재 건수가 되었다. 그리고 2021년 8월에는 다시 그 등재 건수가 이탈리아(58건)의 뒤를 이어 2위(56건)를 기록하였다.

또 무형문화유산을 보게 되면 대응의 적극성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 ‘긴급보호목록’, ‘보호 모범사례’⁵⁾에 등재

2) 유네스코의 ‘유산’ 제도가 세계를 석권하기 이전에 일본에는 ‘문화재’ 제도가 존재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국내의 전통문화 보호 정책에 대해 문화재보호법(1950년 시행)에 따라 기존의 문화재 제도와 ‘유산’ 제도를 이중구조적으로 점검하는 교육지책을 취했다. 한편 중국의 경우 유네스코 ‘유산’ 제도에 자극을 받아 국내의 여러 문화 제도가 새롭게 정비되었기 때문에, ‘유산’ 개념과 제도가 중국적으로 치환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외형 면에서는 일본 이상으로 유네스코 제도와 연속성이 높다. 이처럼 나라마다 ‘유산’ 제도의 수용 양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산’ 개념의 의미 수용과 제도의 양상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는 중국과 일본 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3) 세계유산으로서의 자리매김은 일반적으로 세계유산 ‘등재’로 표현되며 이 표현을 일본의 소관 부서인 문화청도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정식으로는 ‘세계유산 목록에의 등재’로 표현된다.

4) 2005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세계유산 목록 등재 건수에 한정해 보면, 중국은 17건(등재 건수 세계 1위)으로 이탈리아(11건), 이란(11건), 프랑스(10건) 등을 크게 따돌려, 근년 중국이 세계유산 정책에 대한 개입을 가속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된 중국의 건수는 2020년 2월 기준 총 42건으로 세계 1위의 등재 건수를 자랑한다. 다른 나라들(2위 일본 22건, 3위 한국 21건)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 숫자들로 중국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정책을 열렬히 환영하며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 정치 안에서 산출된 ‘유산’의 사고방식은 중국을 크게 자극해 이제 중국은 ‘유산’의 핫 스폿이 된 것이다.

이러한 유네스코 유산의 자극은 2000년대 이후의 문화유산 시대에 중국 내에서 전개된 문화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다만 중국 정부는 유네스코의 ‘유산’ 개념을 그대로 직수입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의미 내용이나 범주, 그리고 그 가치를 중국적으로 치환해 재편한 것, 즉 어긋나거나 어긋나게 한 것이다.

중국은 일찍이 문화대혁명에 의해 다수의 전통문화를 봉건적 문화 또는 미신적 문화로 치부해 파괴하고 부(負)의 문화로 부정했지만, 그러한 사고방식은 이제 밑바탕에서부터 전환되고 있다. 문화대혁명 이전 이미 중국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문화를 ‘재(財)’ 혹은 ‘보(寶)’로 간주해 보호하는 제도가 존재하였다. 1961년에는 국무원(國務院)이 『문물보호관리잠행조례(文物保護管理暫行條例)』를 제정해 ‘문물(이른바 유형문화·물질문화)’ 보호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 보호에 관한 법규가 문화혁명기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많은 문물이 파괴되었다. 문화대혁명이 수습된 후인 1982년에 비로소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이 제정되어 역사·예술·과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물이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되었다. 이 문화 보호 제도에 의해 지켜야 할 대상이 된 ‘문물’은 문화유산 시대에 접어든 현재 ‘유산’으로서 새로이 자리매김되고 있다.

유네스코 ‘유산’의 자극을 받아 2005년 12월에 『국무원의 문화유산 보호

5)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는 무형문화유산의 등재 ‘목록(list)’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과 ‘긴급보호목록(Urgent Safeguarding List)’의 두 종류가 명시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보호 모범사례(Best Safeguarding Practices)’를 더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보호 모범사례는 ‘협약’ 정신에 입각한 우수한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실례로 정부간위원회가 선정해 ‘등록(register)’한다.

강화에 관한 통지[國務院關於加強文化遺產保護的通知]⁶⁾가 국무원에서 내려졌다. 이 통지는 중국적인 ‘문화유산’ 개념과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유산’이란 ‘물질문화유산’과 ‘비물질문화유산(앞에서도 언급했듯이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의 중국어 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중국의 ‘문화유산’ 개념은 중국적으로 치환된 것으로 유네스코가 사용하는 ‘문화유산’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개념상 그것은 비물질문화유산도 포함하는 게 특징적인데,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에서 정의하는 (‘세계) 문화유산’과는 의미 내용이 어긋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유산 제도와 무형문화유산 제도를 별도로 제도 설계를 했다.⁷⁾ 그 때문에 세계유산 제도가 정의하는 ‘문화유산’ 개념 안에 무형문화유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중국에서는 ‘문화유산’ 안에 물질문화유산과 비물질문화유산의 양쪽을 다 포함해 정책·제도상의 기초 개념을 구성하고 있다.

중국은 이처럼 유네스코의 ‘유산’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독자적인 개념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국적 ‘유산’ 개념의 구성 안에 유네스코의 ‘유산’ 개념이 재배치되어 있다. 가령 유네스코가 규정한 ‘문화유산’은, 중국이 규정한 ‘문화유산’의 하위개념인 물질문화유산으로 재배치되어 있다.

6)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http://www.gov.cn/gongbao/content/2006/content_185117.html).

7) 정확히 말하면, 세계유산 제도와 무형문화유산 제도는 성립 연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설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세계유산 제도는 1970년대에 선행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유형문화와 물질문화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았다. 그 이후 제도적으로 포섭되지 못한 무형문화의 가치가 인정을 받아, 그것을 보호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보완하는 형태로 체결된 것이다. 그 결과 세계유산 제도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문화유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조약으로 ‘무형문화유산’이 설정되었다. 본래 중국과 같이 ‘무형문화유산’을 ‘문화유산’에 포함시키거나 그 하위개념으로 보는 게 논리적으로는 정합성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네스코 제도에서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다. 논리상의 표현과 제도상의 표현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유산 제도의 ‘문화유산’은 정식적으로는 ‘세계문화유산’이지만,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조문 속의 정의에는 기실 ‘세계(world)’라는 글자가 빠져 있다. 그리고 그 용어는 중국에서 ‘물질문화유산’이라 불리는 물질문화만을 포함하는 제도상의 한정적 용어로 쓰이고 있다.

유네스코가 규정하는 ‘(세계) 문화유산’은 협약상 ‘기념공작물’, ‘건축물군’, ‘유적’으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기념공작물은 ‘건축물, 기념의 의의가 있는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질의 물건 및 구조물, 금석문, 동혈 주거(洞穴住居) 및 이들 물건의 조합으로 역사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건축물군은 ‘독립된 건축물군 또는 연속된 건축물군으로 그 건축 양식, 균질성 또는 경관 내의 위치 때문에 역사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 현저한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그리고 유적은 ‘인간의 작품, 자연과 인간의 공동작품 또는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하는 구역으로 역사상, 예술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현저한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⁸⁾

한편 중국 정부가 「국무원의 문화유산 보호 강화에 관한 통지」에서 규정한 ‘문화유산’ 중 물질문화유산은 역사, 예술, 과학(학술)적 가치를 가지는 ‘문물’, 즉 유적이거나 고분, 고건축, 석굴사(石窟寺), 석각, 벽화, 근현대 중요 사적 및 대표적 건축물 등을 포함한 ‘이동할 수 없는 문물[不可移動文物]’과 역사상 각 시대의 중요 문물, 예술품, 문헌, 자필 원고, 도서 자료 등을 포함한 ‘이동할 수 있는 문물[可移動文物]’, 그리고 건축 양식이나 분포가 일정하거나 환경 경관과의 결합이 높은 가치를 갖는 ‘역사문화 명성(歷史文化名城)’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양자의 내용을 대조해 보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포함하는 사물이 상당히 중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에서는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긋나게 설정하면서도, 그 하위개념인 물질문화유산의 범주에 의해 유네스코와의 정합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다음, 유네스코가 규정한 무형문화유산과 중국이 규정한 비물질문화유산은 처음부터 대체로 정합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 ‘분야(domains)’는 ① 구전에 의한 전통 및 표현(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 언어를 포함), ② 예능, ③ 사회

8) 文化廳文化遺産オンライン(http://bunka.nii.ac.jp/world/h_13_2A.html).

9) 예를 들면 가구(街區), 촌진(村鎮) 등으로 이에 관해선 후술 참조.

적 관습, 의식 및 제례 행사, ④ 자연 및 만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⑤ 전통 공예기술을 포함한다.

반면 중국의 비물질문화유산은 대중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비물질의 형태(무형)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계승되는 전통문화의 표현 형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구두(口頭) 전통, 예능, 민속 활동과 의례나 축제일, 자연계와 우주의 민간전통에 관한 지식과 실천, 전통 수공예 기술 및 상술한 전통문화의 표현 형식과 관련된 문화공간'¹⁰⁾ 등의 분야가 예시되어 있다. 그것은 유네스코가 정의하는 무형문화유산과 거의 중첩된다.

중국 정부가 국내 문화정책을 위해 구축한 '유산' 개념은 기본적으로 그 전체 구성이 유네스코 '유산' 개념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자세히 검토해보면 유네스코 '유산' 개념과는 어긋나거나 어긋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유네스코와 중국 정부의 어긋남은 '유산'에서 발견하는 가치의 평가 대목을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주지하다시피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에서는 인류 전체를 위한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무형문화유산 제도에서는 문화의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조장하는 가치와 같은, 일종의 인류 보편의 유니버설한(universal) 가치가 중시된다. 한편 중국에서는 그러한 보편적 가치에 더해 국가 내부를 향한 내셔널(national)한 가치가 중시된다. 앞에서 언급한 「국무원의 문화유산 보호 강화에 관한 통지」에서 중국 정부는 문화유산에서 발견하는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문명의 고국(古國)이다. 오랜 세월 중화민족은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무수하고 귀중한 문화유산을 창조하였다. (중략) 한층 더 우리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사회주의 선진문화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원은 2006년부터 매년 6월 둘째 주 토요일

10)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http://www.gov.cn/gongbao/content/2006/content_185117.html).

일을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날’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중략) 중화민족 고유의 정신 가치, 사고방식, 상상력을 내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은 중화민족의 생명력과 창조력을 체현한 것으로, 이는 각 민족의 지혜의 결정체이자 전 인류 문명의 귀중한 보배이다. 문화유산 보호와 민족문화 전승의 보존과 유지, 민족 간 감정적 유대를 마련하고 민족단결을 증진하며 국가통일 및 사회 안정을 지키는 중요한 문화 기초이다. 이는 또한 세계 문화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지키고 인류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전제이다. 문화유산의 보호 강화는 사회주의 선진문화 건설과 과학발전관을 철저히 실행하고 사회주의 조화사회를 구축할 필요조건이다.¹¹⁾

위 인용문에서 세계 인류를 향한 보편성과 다양성 등을 언급한 부분에는 유네스코의 이념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보편적 가치 속에 중화민족의 우수성과 독창성, 나아가 국가통일, 민족단결, 조화사회와 같은 국가적 슬로건이 박혀 있다. ‘유산’의 가치가 국가 통치의 가치로 적극 전환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유산’ 개념에서 국가 통치에 이바지할 만한 유용성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유산에 관한 국내 제도를 순식간에 정비하였다. 특히 그동안 제도적 방안이 없었던 비물질문화유산에 관한 제도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정비하였다.

『국무원의 문화유산 보호 강화에 관한 통지』가 나오기 4개월 전인 2005년 8월, 국무원 관공청(辦公廳)은 『국무원 관공청의 국가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관한 의견[國務院辦公廳關於加強我國非物質文化遺產保護工作的意見』』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내용을 보면 비물질문화유산의 가치 및 그 보호의 중요성과 긴급성, 보호 사업의 목적과 방침, 인가(認可, 중국어로는 ‘비준(批准)’으로 표현)·공포(公布)할 목록 작성과 보호 제도, 보호 사업의 책임과 구조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비물질문화유산 제도가 본격 가동하게 되었다. 비물질문화유산 제도는 중앙 정부 주도하에 집권적으로 정

11)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http://www.gov.cn/gongbao/content/2006/content_185117.html).

비되었고, 나아가 성(省)·시(市)·현(縣) 차원의 제도도 함께 정비되었다. 그 결과 현재는 국가급(級), 성급, 시급, 현급의 중층적인 비물질문화유산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2006년 상기한 의견서에 따라 『국무원의 국가 비물질문화유산 목록에 관한 제1차 통지[國務院關於公布第一批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名錄的通知]』가 발표되어, 518개 항목의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목록 등재가 인가, 공포되었다(제1차 인가).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목록의 인가에는 ‘특출한 역사·문화·과학적 가치’, ‘집단에 의한 세대 전승성’, ‘해당 지역에서의 비교적 큰 영향력’,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과 함께 ‘소실의 위기에 처한 것’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이후 제2차 인가와 제1차 인가의 확대(2008년, 510개 항목), 제3차 인가(2011년 191개 항목), 제4차 인가(2014년, 153개 항목), 제5차 인가(2021년, 185개 항목)를 거쳐, 2021년 8월 현재 1557개 달하는 전통문화가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인가되었다.

위와 같은 중국의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인가 건수에는 이 정책에 몰두하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나타나 있다. 일본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무형민속문화재의 지정 건수와 비교하면 그 열정이 일목요연하다. 일본에서는 1950년에 지정이 개시된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건수가 106건(각개인정(各個認定) 70건, 보유단체 등 인정 36건, 각개인정은 보유자의 사망에 따라 인정이 해제되므로 증감이 있다), 국가 지정 중요무형민속문화재가 1975년 이후 323건, 합계 429건밖에 지정되지 않았다(2021년 8월 현재). 이에 반해 중국에서는 불과 15년 만에 1557건에 달하는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이 인가되었다. 이러한 지정 건수의 차이로 중국 비물질문화유산 정책의 규모와 엄청난 전개 속도를 확인할 수 있겠다.

2011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비물질문화유산법(中華人民共和國非物質文化遺產法)』이 제정되었고, ‘조사’, ‘항목 목록(인가)’, ‘전승과 전파’, ‘법률 책임’ 등의 관리 제도가 한층 더 갖추어졌다.¹²⁾ 또 중국 중앙 정부는 문화유산

시대를 맞이하여 비물질문화유산과 함께 ‘문화유산’ 중 물질문화유산에 대한 제도 정비에도 착수하였다. 주된 물질문화유산은 이전부터 존재했던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의 변주 즉 ‘어긋나게 하기’로 보완했는데, 중국이 ‘유산’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2000년대 이후 물질문화유산에 대한 제도의 내실화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역사문화 명성(가구(街區), 촌진(村鎮))’에 관한 제도가 그 전형적 보기이다.

‘역사문화 명성’ 제도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전통적 건축물군 보존지구(傳統的建造物群保存地區)’와 유사한 것으로 역사적 경관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것은 인가 단위 규모 순으로 ‘역사문화 명성(歷史文化名城, 대도시를 지정)’, ‘역사문화 명진(歷史文化名鎮, 진(鎭)을 지정)’, ‘역사문화 명촌(歷史文化名村, 마을을 지정)’의 세 가지로 나뉜다.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고대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나 혁명의 고장 등)나 양호한 형태로 고건축군이 남아 있는 도시와 진, 마을 등이 선정된다. ‘역사문화 명성(가구, 촌진)’의 개념 자체는 상기한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에 의해 1982년에 이미 제시되었지만, 2000년대에 이르러 이를 보호하는 제도가 더욱 정비되었다.

2005년에 「역사문화 명성 보호규획규범(歷史文化名城保護規劃規範)」이 시행되어 보호의 원칙과 조치 방법이 통일되었고, 2008년에는 「역사문화 명성·명진·명촌 보호조례(歷史文化名城名鎮名村保護條例)」가 제정되어, ‘역사문화 명성’·‘역사문화 명진’·‘역사문화 명촌’의 신고와 인가, 공포 방법, 보호 계획, 조치 등이 명확해졌다.¹³⁾ 이 조례의 제1장 총칙 제3조에는 “역사문화 명성·명진·명촌의 보호는 과학적 계획과 엄격한 보호의 원칙에 따라 그 전

12) 제도 정비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는데, 설계 단계에서 많은 민속학자들이 관여하였다. 陳勤建, 『民俗學者と現代中國の無形文化遺産保護』, 『日本民俗學』 279(日本民俗學會, 2014), 42~47쪽; 葉濤, 『中國民俗學會と中國無形文化遺産の業務』, 『日本民俗學』 279(日本民俗學會, 2014), 48~53쪽 참조. 현재 중국에서는 문화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구체적인 등록 단계의 조사, 심사 등에 많은 민속학자들이 동원되고 있다.

13) 孫安軍, 『《歷史文化名城名鎮名村保護條例》實施的研究』, 『中國名城』 2010年 第5期(揚州市人民政府, 2005), 4~7쪽.

통 구성과 역사 풍모(風貌)를 유지, 지속시켜 역사문화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完整性]을 지키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경제사회 발전과 역사문화유산 보호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¹⁴⁾ 이 규정에서는 역사문화유산의 보호와 때로 트레이드 오프(trade off)가 되는 ‘경제사회 발전’의 균형이 고려되고 있어, 경제적 목적을 가진 행위가 반드시 부정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계획적이고 엄격한 원칙을 준수하는 보호 및 전통과 역사의 유지가 강조되고, 나아가 ‘진정성’, ‘완전성’과 같은 본질적인 실태 보존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위에 명시된 ‘진정성’, ‘완전성’이라는 개념은 사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운용지침에서 규정하는 ‘authenticity’와 ‘integrity’라는 등재 조건의 번역어로, 이 양자가 유네스코의 제도 개념을 준용한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겠다. authenticity는 당해 ‘유산’이 ‘진짜’인지를 묻는 척도이며, integrity는 ‘유산’과 그 특성을 전체로서 포괄해 계승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묻는 척도이다. 이는 ‘유산’으로 인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이며, 또한 ‘유산’이 진짜여야 하고 그 내용이나 가치를 온전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유산’의 자연스러운 변용과 인위적인 개변을 기피하는, 본질주의적 문화관에 기초한 기준과 조건이 중국의 ‘역사문화 명성·명진·명촌’의 보호 제도에서 중시되고 있음을 이 대목에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나중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이 ‘진정성’과 ‘완전성’이라는 조건의 이행은 실제 ‘역사문화 명성·명진·명촌’에서는 거의 완수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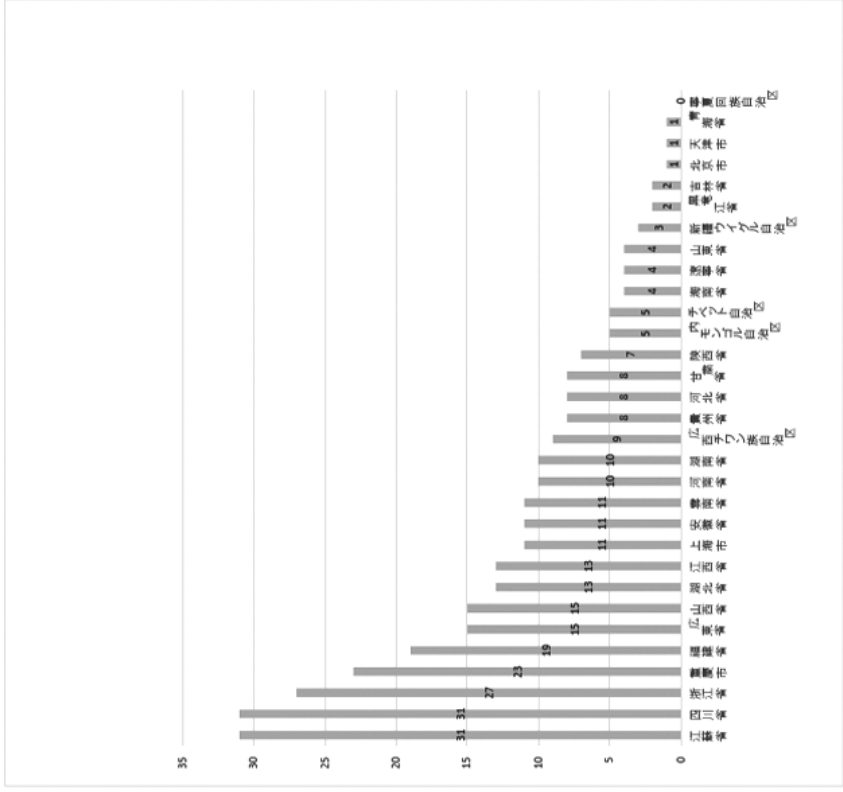
국가급 ‘명성’의 인가는 1982년부터 개시되었지만 ‘명진’·‘명촌’의 인가는 2003년 이후(2019년까지 총 7차례의 인가)에 이루어져, ‘명진’·‘명촌’이 중국 문화유산 시대의 산물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겠다. 문화유산 시대에 들어서면서 지방으로 그 보호 활동이 확대되었던 것이다. 다만 보호 정책의 확대는 중국 전도에서 균질하게 행해지지 않았고 지역적으로 상당한 편중이 있었다.

14)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http://www.gov.cn/flfg/2008-04/29/content_957342.html).

	計
江蘇省	31
四川省	31
浙江省	27
重慶市	23
福建省	19
広東省	15
山西省	15
河北省	13
江西省	13
上海市	11
安徽省	11
雲南省	11
河南省	10
湖南省	10
広西チワン族自治区	9
貴州省	8
河北省	8
甘肅省	8
陝西省	7
内モンゴル自治区	5
チベット自治区	5
湖南省	4
遼寧省	4
山東省	4
新疆ウイグル自治区	3
黒竜江省	2
吉林省	2
北京市	1
天津市	1
福建省	1
寧夏回族自治区	0
計	0

台湾、さらに香港、マカオなどの特別行政区を除く

23省 (台湾を含む) ・5自治区 ・4直轄市 ・2特別行政区



(그림 1) 국기급 '중국 역사문화 명진'의 성별(자치구, 직할시 포함) 인가 건수(2020년)

위의 <그림 1>은 성별(자치구, 직할시 포함) 국가급 ‘중국 역사문화 명진’의 인가 건수를 정리한 그래프이다. 이를 통해 지역마다 ‘명진’의 인가 건수가 크게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가 건수가 가장 많은 강소성(江蘇省)과 사천성(四川省)은 31건인 데에 비해, 영하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의 경우 0건이다. 대체로 화중(華中)·화남(華南) 지역의 연해부(沿海部)에 위치한 성의 인가 건수가 많고, 동북부나 내륙부에서는 비교적 적다.

이는 이른바 넓은 상점가가 잔존하는 거리 곧 고진(古鎮)이 화중·화남 지역에 다수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보호 정책과 경제의 관계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주지하다시피 화중·화남 지역은 중국에서도 경제발전이 선행된 지역이다. 그 때문에 일찍부터 도시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농촌 지역까지 개발이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고진의 보호가 시급해져 지역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사문화 명진’ 인가 신청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또 그 보호에 필요한 자금 출처도 고려해야 한다. 국가급 ‘중국 역사문화 명진’의 선정 및 인가 작업의 실무는 중앙 정부의 건설부(建設部)와 국가문물국(國家文物局)이 담당하지만, 실제 보호 사업은 성 등의 지방 정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경제력과 신청 활동이 크게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의 인가가 탁월한 것은 관광 개발이라는 경제적인 이유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 ‘역사문화 명진’ 인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유산’ 보호의 움직임은 관광산업과 밀접히 연관된다. ‘유산’과 관련된 여러 법률이나 제도에서도 보호뿐만 아니라 ‘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강조된다. 아니, 오히려 중국의 ‘유산’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문화 보호를 가장하고 실제로는 국가 통치나 경제발전이라는 실리적인 목적이 뚜렷이 내포되어 제도적으로 치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단순한 문화 ‘유산’ 제도에서 어긋나거나 어긋나게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어긋나거나 어긋나게 하는’ 상황은 지방에서 실제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가운데 더욱 첨예하게 펼쳐진다. 다음 장에서는 지방의 ‘고

진(古鎮)에서 ‘유산’ 정책의 치환과 그에 따른 문화의 객체화, 그리고 정책을 치환하는 전통 담당자들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3. 고진화(古鎮化) 과정의 문화 보호와 관광 개발: 국가 ‘유산’을 비껴놓은 지방 정책

절강성(浙江省) 구주시(衢州市) 강산시(江山市) 28도진[廿八都鎮]¹⁵⁾은 ‘고진’의 전형으로, 상술한 국가급 ‘중국 역사문화 명진’에도 선정되었다. 고진이란 낡은 건축물과 함께 ‘전통’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 있고,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전통’적인 상점가군을 말한다. 그곳에서는 문화의 하드웨어인 고건축과 유물 등의 물질문화유산과 소프트웨어인 생활문화 등의 비물질문화유산 등이 함께 보존·보호 또는 활용되고 있다. ‘유산’으로서의 고진이 지닌 역사성은 현재 중국 관광 개발의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다만 고진은 역사의 추이 속에서 자연스레 잔존되어 온 게 아니다. 바로 지금 고진으로서 창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 창조 과정은 ‘고진화’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이다. 건축물과 거리, 그리고 생활문화 등 방문객이 고진 전체에서 역사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궁리와 변통이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건물을 고풍스럽게 개조하거나, 원래 없었던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가진 ‘고(古)’ 건축물을 신축하기도 한다. 또 상점이 풍경과 지역문화를 특색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지역문화의 취사선택과 변형, 데포르메(déformer)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곳은 관광객들을 향해 지역문화를 전시하는 ‘파빌리온(pavilion)’으로 개조되어, 지역성을 고려한 문화를 주제로 그 주제에 따라 거리가 특징

15) 중국에는 두 개의 행정적인 ‘시(市)’ 단위가 있다. 구주시(衢州市)는 ‘지급 행정구(地級行政區)’의 ‘시’이며 강산시(江山市)는 ‘현급(縣級)’의 ‘시’로, 구주시가 강산시를 포함한 상위의 시이다. 중국의 지방행정 구분은 성급 행정구(성, 자치구, 직할시 등), 지급 행정구(시나 지구, 자치주 등)·현급 행정구(현, 현급 시 등), 향급(鄉級) 행정구(진이나 향 등), 그리고 이 향급 행정구에 소단위의 촌(村)이나 사구(社區)가 속하는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

되고 연출되는 이른바 ‘테마파크’로 개조되고 있다. 그 극단적일 정도의 개조는 본디 국가급 ‘역사문화 명진’으로서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진정성’이나 ‘완전성’과 같은 요건을 적잖이 뒤흔드는 행위이다. 즉 중국의 지방 문화 정책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고진화는, 중앙 정부가 구성한 고진 보호의 법적 자리매김이나 조건으로부터 상당히 일탈한, 그러니까 어긋나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중국 민속학자 저우싱[周星]은 이처럼 고진으로 거리가 변화하는 고진화를 가리켜 “고진의 재발견”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고진의 문화적 가치에 주목하는 사회적 고양(高揚)이 1990년대에 장강(長江)이나 주해(珠海) 삼각주 지대 등의 경제발전이 두드러지는 지구에서 시작되어,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¹⁶⁾ 28도[廿八都] 역시 예외가 아니며 고진으로서 근년 재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진의 재발견이나 창조는 중국 각지의 관광 개발의 장이라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보통의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이 현상은 세계 각지의 역사적 관광지에서도 드문드문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 현상이 더욱 과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28도진 중 ‘고진’으로서 보호받고 있는 중심부는 면적이 3.5km², 호수 1007호, 인구 3133명(2007년 9월 기준)으로 심리촌(潯裏村)·화교촌(花橋村)·풍계촌(楓溪村)의 세 행정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곳은 절강성, 강서성, 복건성 3개 성의 경계[三省交界]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교통의 요충지였다. 복건성에서 절강성으로 빠져나가는 선하古道(仙霞古道)는 일찍이 화남에서 북상하는 중요한 가도(街道)였으며 많은 사람이 왕래하였다. 이 때문에 28도진에는 일찍부터 절강성, 강서성, 복건성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섞여 살았고, 현재까지도 진 안에는 142종의 성씨, 13종 이상의 방언이 확인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파빌리온 또는 테마파크로 전화한 28도진의 주요 모티프로

16) 周星, 『現代中國社會における古村鎮の『再発見』』, 『愛知大學國際問題研究所紀要』 138(愛知大學國際問題研究所, 2011), 89~111쪽.

활용되고 있다.

중국 각지의 고진은 정부 등의 공공 부문에 의해 보호되는 한편 동시 병행적으로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는데, 이 28도진도 보호와 개발 역시 정책적으로 동시 진행되고 있다. 28도진은 존재하는 건축물의 약 8할이 명나라 말기부터 청나라, 중화민국 시기를 거친 고건축물이라고 하며, 현재 심리(潯裏) 거리, 풍계(楓溪) 거리를 중심으로 한 가로(街路)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전통 문화 보호가 전개되고 있다. 28도의 문화정책은 문화유산 시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과격해지고 있다.

28도에서 지역 전통문화를 보호하는 정책이 시작된 시점은 문화유산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인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86년 당시 강산현(江山縣, 현 강산시) 인민 정부는 28도진의 유명한 명소 옛터[名所舊跡]인 문창궁(文昌宮), 수안교(水安橋), 풍령관(楓嶺關)을 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하였다. 1988년 8월에는 강산시 9계 인민대표대회(江山市九屆人民代表大會) 3차 회의의 대표(三次會議代表)와 상무위원회로부터 심의 의견을 제출받아 28도를 시급(市級)의 ‘역사문화 명진’에 포함시키기 위한 연구를 시행할 것이 결정되었고, 1991년에는 절강성 정부로부터 성급(省級)의 ‘역사문화 명진’으로 인가되었다. 동시에 문창궁, 수안교와 그 주변이 건설억제지대로 지정되었고, 이듬해인 1991년 8월에는 문창궁이 절강성 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었다.¹⁷⁾ 이와 같은 보호 활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문화유산 시대에 도래하기 이전의 문화정책은 문물 보호라는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걸쳐서 문화정책의 중점은 문물 보호에서 경제발전으로 이행되어 간다.

1998년 8월에 절강성과 구주시(衢州市) 급(級)의 정부 간부가 28도를 시찰하려고 방문하였다. 여기에 참석한 절강성 정치협상회의(浙江省政治協商會議) 부주석은 “28도의 고건축은 전통문화의 축도(縮圖)로 무엇과도 바꿀

17) 蔡恭·祝龍光主編, 『廿八都鎮志』(中央文史出版社, 2007), 31~38쪽.

수 없는 보물이며, 매우 특색이 있고 발전 가치가 있다. 현재 긴급 구조적인 보호로 다잡지 않으면 안 되며, 28도의 경제와 고진 문화 개발의 결합으로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위풍당당한 풍격을 다시금 일으켜야 한다.”¹⁸⁾라고 28도의 문화를 예찬하고, 문화와 경제가 결합하는 사업을 지지하였다. 이 간부의 의견에서 당시 28도의 고진 보호가 이미 개발 및 경제발전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활동으로 자리매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6월 강산시 인민 정부는 고건축 중 29건을 시급의 중점문화보호단위로 지정하고, ‘강산시 28도 고진 보호와 개발 관공실[江山市廿八都古鎮保護與開發辦公室]’을 개설하였다. 이후 이 관공실과 진(鎭) 정부가 현지에서 고진 보호 개발을 주도하게 된다.¹⁹⁾ 이 관공실의 이름에 ‘보호’와 ‘개발’이 병기되어 있듯이, 고진 보호의 움직임은 단순한 문화 보호뿐만 아니라 문화를 활용한 개발, 특히 관광 개발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행한 것이다.

2001년에는 남경(南京) 동남대학(東南大學) 성시규획설계원(城市規劃設計院) 중더쿤(仲德昆) 교수가 「28도 역사문화 보호구 설계도[廿八都歷史文化保護區保護規劃]」를 만들었다. 이 설계도는 2002년에 절강성 역사문화 명성 보호 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003년 절강성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에 이 승인에 따라 강산시 정부는 ‘28도 고진 보호 및 개발 영도 소조[廿八都古鎮保護與開發領導小組]’를 설립하고, 「28도 성급 역사문화 보호구 보호관리법[廿八都省級歷史文化保護區保護管理辦法]」을 제정하였다.²⁰⁾ 또 2002년에는 인근 관광지로 중시되는 ‘강랑산(江郎山) 국가급 풍경 명승구’의 구성 단위가 되었고, 2004년에는 28도 고진 보호와 개발 프로젝트가 ‘절강성 중점건설항목(성의 중점적인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또 같은 해에 28도를 관통하는 선하고도를 옛 도연선의 선하관(仙霞關)과 강랑산(江郎山), 부개산(浮蓋山) 등과 조합하여 ‘해상의 실크로드[海上

18) 위의 책, 33쪽.

19) 위의 책, 31~38쪽.

20) 위의 책, 127쪽.

絲綢之路]’로서 세계유산으로 신청하려는 계획이 제기되어, 실제로 절강성 건설청을 거쳐 중앙 정부의 건설부에 보고되었다.

이 시기가 되면 1990년대에 비해 상급 정부 간부가 28도의 고진 보호·개발에 더욱 관여한다. 그들은 29도를 시찰하고 그 보호와 개발 사업을 높이 평가하며 사업 추진을 지지하고 고무하였다. 90년대에는 기껏해야 성·구주 시 급의 정부 간부 정도가 28도를 방문했지만, 이 무렵에는 중앙 정부 급의 간부들까지 시찰을 오게 되었다. 예를 들어 2006년에는 중앙 정부 관계자들이 잇달아 이곳을 방문하였다. 3월에는 중앙 정부의 문화부 부부장, 성의 문화청 청장, 구주시의 선전부장 등이 시찰에 나섰고, 이들을 강산시 정부의 지도자이자 28도 고진 개발의 핵심이었던 푸근유[傅根友] 시장이 수행, 안내하였다. 또 4월에는 중앙의 전국 정치협상회의 부주석도 시찰했다. 28도의 고진 개발에서 강산시 지방 정부는 구주시, 절강성, 그리고 중앙 정부와 같은 상급 정부의 보증과 지원을 얻어내는 데에 성공한 것이다.²¹⁾

그리고 2007년에 28도는 중앙 정부로부터 앞서 소개한 국가급의 ‘중국 역사문화 명진’으로 인가·공포되었다(제3차 인가). 나아가 2008년에는 문화부에 의해 ‘중국 민간문화예술지향(中國民間文化藝術之鄉)’으로 지정되었다. 국가급의 ‘중국 역사문화 명진’으로 인가된 당시, 28도에서는 고건축물의 복원 및 고진 정비를 위한 용지 매입, 주민 이전 등 정책적인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당시 28도진 정부의 간부는 강산시 정부로부터 직접 파견되어 고진 개발의 직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예를 들어 28도진 공산당 위원회 서기·인민대표회의 주석은 강산시 여유국(旅遊局, 여행국) 부국장이 겸하고 있었다(2008년 8월 시점). 또 2006년부터 28도 부진장(副鎮長)에 취임한 인물은 강산시 29도 고진 보호와 개발 관공실의 주임이 겸무해 고진 개발의 정책수행 실무에 임하고 지역 주민의 교섭을 겸하였다. 그는 원래 강산시 여유국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28도 개발과 함께 파견된 것이다.

21) 위의 책, 38~40쪽.

이 28도 고진 개발의 정책 입안 과정에는 앞에서 기술한 동남대학을 비롯해 상하이시의 동제대학(同濟大學), 하남성의 정주대학(鄭州大學) 등의 고건축,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관여하였다. 그리고 2008년 4월부터 제1기 공사가 시작되어 2008년 10월 26일 준공될 때까지 무려 7648만 위안에 달하는 자금이 강산시로부터 투입되어 심리 거리를 중심으로 한 고진의 정비가 추진되었다.

2008년 가을에는 절강성과 복건성을 잇는 황구남(黃衢南) 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2009년에는 국경절을 맞이하여 9월 26일에 ‘28도 고진’으로서 밖으로 개방되었다. 문창궁 등 중심 건축물은 개보수하여 그 자체로 역사적인 파빌리온이 되었고, 옛 살림터에는 주민이 그대로 거주하면서 생태환경과 문화(문화생태)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이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전시하는 파빌리온으로 개조되었다. 28도 고진은 이후 한층 더 성 차원의 비물질문화유산의 보호 정책으로 지지를 받게 된다. 28도는 ‘강산 28도 문화생태구’로서 2009년 2월에 ‘절강성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근거해 성내 7개소의 문화 생태구와 함께 ‘비물질문화유산 보호구 시점(非物質文化遺產生態保護區試點, 무형문화유산 생태 보호구 모델)’으로 지정되었다.

2009년 고진의 대외 개방에 따라 28도 고진의 경영·관리는 강산시 여육국이 출자하는 종업원 40명 정도의 ‘강산시 28도 고진여유개발유한공사[江山市廿八都古鎮旅遊開發有限公司]’(2005년 설립)로 이관되어 방문객 리셉션 센터(visitor reception center, 여객 접대 중심)와 호텔 등도 정비되었다. 이 공사는 전시관, 옛 살림터의 입장 수입 이외에 상업지로 정비한 건물의 임대료 수입, 방문객 리셉션 센터 내의 레스토랑, 호텔, 상점 등의 청부(請負)에 따른 수입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사에는 고진 내부를 안내하는 가이드와 유치된 외래 상점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28도 외에 강산시 등에서도 고용되었다.²²⁾ 공사는 수익을 내면서 고건축이나 거리의 수복, 폐수 처리 등의 환

22) 수복(修復)과 관련하여 당시 28도에 전문적으로 가옥 건축을 하는 숙련된 ‘목공(장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완료한 부분을 포함해 90% 이상을 28도 이외의 노동자가 담당하였다. 또한 설계와

경설비 등도 계속해서 집행하고 있다.

2000년대 28도 고진 보호·개발이 활성화한 가장 큰 이유는 그 활동이 지방의 문화보호 정책에서 벗어나, 더욱 고차원의 국가적 중요 정책과 연계된 데에 있다. 그 국가 정책이란 ‘신 농촌 건설’ 정책이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현저한 경제발전을 이룬 반면 ‘농업’의 저생산성과 ‘농촌’의 황폐화, 그리고 ‘농민’의 빈곤이라는 이른바 ‘삼농문제(三農問題)’가 발생하였다. 농민 소득이 제자리걸음하고 도농 간의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이는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세운 정책 목표가 ‘신 농촌 건설’이다.

2005년 10월 11일 후진타오[胡錦濤] 정권하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6기 5중 전회(中國共產黨第16期五中全會)에서 「중공 중앙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년 기획 제정에 관한 건의[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的建議]」가 채택되었다. 이는 정부가 농업과 농촌에 자본을 투하하여 농촌의 사회 기반을 개선하는 일대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국가 중점 정책에 당시 강산 시장(후에 서기)이었던 푸근유가 대응하여 ‘중국 행복 향촌(中國幸福鄉村)’이라고 불리는 지방 정책을 입안하였다.

푸근유가 주도하는 강산시 정부는 2009년부터 8.5억 위안을 투입하여 ‘중국 행복 향촌’ 프로젝트를 개시하였다. 이것은 신 농촌 건설의 ‘승급판(昇級版, 업그레이드판)’으로 여겨져 ‘강산모식(江山模式, 강산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선전되었고, 농촌 개발 계열의 연구자와 정부 관계자의 지원을 받았다. 강산시는 ‘중국 행복 향촌’을 18개소로 정하였고 그중 하나로 28도가 선출되었다.

2009년 12월 11일에 29도 관제묘(關帝廟) 광장에서 푸근유 서기는 300명 이상의 28도 관계자들에게 고진 여행 개발과 행복 향촌 건설에 대해 강연하고, 28도 고진 개발의 무궁한 발전과 견지(堅持)를 주장하였다. 이 28도 고진

디자인의 결정 등도 28도 이외의 외부인이 맡았다.

개발은 ‘신 농촌 건설’이라는 국가 정책과 연계된, ‘중국 행복 향촌’ 창건의 지방 정책과 궤를 함께하고 있다. 즉 단순히 고건축과 비물질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산업과 고용 창출, 그에 따른 수입 증가, 주거환경의 개선(인프라 정비), 생활 개선 등을 목표로 한 다목적 종합 정책인 것이다.

4. ‘유산’ 제도가 ‘전통 담당자’에게 끼친 영향: 사람들에 의한 어긋나기

28도는 2010년 국가여유국(國家旅遊局)의 질량등급평정위원회(質量等級評定委員會)로부터 ‘국가 AAAA급 경구(景區)’의 관광지로 인정받았다. 문화 보호를 훌쩍 뛰어넘어 이러한 관광 사업으로의 제도적 대응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① ‘방언왕국(方言王國), 백성고진(百姓古鎮)(다양한 방언과

출계를 지닌 주민들의 진), ② ‘계명3성(鷄鳴三省), 상무집진(商貿集鎮)(절강·강서·북건 3성의 경계로 상업이 집적하는 진), ③ ‘병가지지(兵家之地), 변수중진(邊陲重鎮)(국경의 군사적 요충지인 진), ④ ‘민속매력(民俗魅力), 풍정고진(風情古鎮)(민속의 매력과 풍정이 가득한 고진)’의 네 가지 테마를 기반으로 고진 만들기가 진행되었다.



〈사진 1〉 고진화한 28도의 상점가

고건축의 개보수와 함께 고풍스러운 새 건물들이 들어서고, 그것들은 위의 네 주제에 얽힌 다양한 문화 요소를 전시하는 파벨리온이 되어 거리

전체가 테마파크로 변하였다. 이에 따라 28도의 지역문화는 취사선택되어 그 존재 방식과 의미를 변화시키고 있다. 예전에는 지역문화의 계승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관광화라는 새로운 상황에 따라 지역문화는 철저히 객체화하여 새로운 가치와 용도가 발견, 창조되었다. 더불어 전통의 담당자들까지도 발견, 창조되었다. 이처럼 객체화한 지역문화의 대표적인 예로 ‘전지(剪紙)’가 있다.

전지는 종이 공예로 중국의 전통적인 민간 공예이다. 그것은 현재 ‘유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중국에서 중요한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되는 민속이다. 2006년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제1회 인가 때에 518개 항목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도 등재되었다.

본래 전지는 춘절(春節) 등의 명절, 결혼식 등의 경사가 있을 때 창문이나 천장·벽·문간, 그리고 기물 등을 장식하는 길상(吉祥)의 민간 공예품이었다. 주로 화훼나 동물, 풍경, 민간 고사 등의 형상이 묘사되었다. 총체적으로 그것은 지역과 민족을 넘어 중국 전역에서 즐기는 보편적인 국민문화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각 지역의 고유한 특징을 지닌 디자인과 기법이 펼쳐지는 지방문화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양식에 따라 북방파(北方派, 섬서성·산둥성), 강절파(江浙派, 강소성·절강성), 남방파(南方派, 광둥성·복건성) 등의 유파로 나뉘고, 다시 지역별로 도안과 기법에 세부적인 특징이 있는데, 근년 그 지역적 특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예전 28도에서도 일상생활 속에 등장하는 보통의 민속으로서 지역적 특징을 가진 전지가 전승되고 있었다. 그 도안은 창문을 장식하는 ‘창화(窓花)’와 축하의 뜻을 지닌 물고기를 장식하는 ‘어화(魚花)’, 춘절에 떡·연고(年糕)를 장식하는 ‘고심화(糕心花)’, 돼지를 장식하는 ‘저변화(豬辺花)’ 등으로 다양하다. 전지는 28도의 경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식품으로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여성이라면 대부분 그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지역적 특징을 가진 전지 제작에 몰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2007년에 28도에서는 C와 T라고 하는 두 명의 여성이 전지의 달인[巧手]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들은 2001년 10월 절강성 텔레비전 방송국이 전지 등과 같은 28도의 민간예술을 취재했을 때에도 함께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전지를 즐기면서도 제작자로서의 성격은 많이 달랐다.

C는 1917년생으로 이미 고령이었다. 그녀는 16세에 인근 복건성 포성(浦城)에서 시집왔다. 그때는 아직 전지 제작 기술을 익히지 못했고 시택에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후 28도 사람들이 춘절 등에 ‘수(壽)’, ‘희(喜)’, ‘창화’, ‘어화’, ‘고심화’ 등의 전통적 전지를 집과 집기에 장식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해, 그것을 이웃에서 배우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덕분에 그녀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8도의 지역적 특징을 가진 전통적 전지의 도안을 전승하고 있었다.

한편 T는 1979년에 28도의 농가에서 태어났다. 자수와 전지를 즐기던 외할머니로부터 전지를 배워, 초등학교 때부터 취미 삼아 전지 제작을 계속해 왔다. 다만 그녀가 할머니에게 배운 것은 단지 전지의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기술과 도안뿐이었으며, 할머니나 C가 전승한 것과 같은 28도의 지역적 특징을 가진 기술과 도안을 전승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28도 고진의 관광 개발이 진행되고 관광 자원으로서의 비물질문화유산의 가치가 재인식 되면서, 몇 안 되는 전지 애호가들 사이에서 28도의 비물질문화유산을 계승하는 ‘명인’으로 발탁되었다.

28도의 전지 명인이 된 T는 현지인뿐만 아니라 29도진 정부와 고진여유 개발유한공사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그 재능을 인정받고 있다. 또 전지 연구의 전문가들도 그녀의 역할을 인정하고, 절강성의 전지를 총괄한 연구서 『절강민간전지사(浙江民間剪紙史)』에 실린 「절강전지명인보(浙江剪紙名人譜)」에도 그녀의 이름을 올렸다.²³⁾ 그녀는 이 지역에서 열린 전지 전시회와 경기 대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수많은 포상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

23) 鄭巨欣, 『浙江民間剪紙史』(杭州出版社, 2013).

한 높은 평가는 2000년대에 들어와 획득한 것으로, 28도의 고진화와 이를 추진하는 정책 및 제도와 궤를 함께하고 있다.

T는 중학교에 가서도 전지에 대한 흥미를 이어나가며 미술 수업에 특별히 노력하였다고 한다. 한번은 미술 수업에서 전지 강습이 있었는데, 그때 최초로 만든 작품 〈화완(花碗)〉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또 친구를 위해 대작한 작품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술 성적은 반에서 가장 우수하여 그녀는 장래에 전지 작가가 될 것을 꿈꾸게 되었다. 그러나 특별히 스승으로 모실 사람도 없고, 전문적으로 공부할 기회도 없었다. 이후 TV나 도안집, 전문서적 등을 바탕으로 자학자습(自學自習)하여 전지 기술을 익혔다. 또 특별히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보통의 전도(剪刀)로 작업을 이어나갔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는 아직 중학생의 취미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는 중학교 졸업 후 미술학교로 진학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포기하고 광저우로 돈벌이를 하러 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전지는 그녀에게 있어 열중할 수 있는 취미였다. 일하면서 틈틈이 불필요한 신문지나 잡지의 종이를 이용하여 전지 제작을 즐겨 왔다. 또 친한 친구들의 집들이나 결혼식에 전지를 제작하여 방을 꾸며주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전지 제작 역량을 인정받게 되었다.

2001년 28도진 정부는 전통문화 보호를 위해 전지 등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정보를 우연히 접한 T의 부친은 그녀가 제작한 〈목동(물소의 등을 탄 아이의 도안)〉, 〈송반(送飯,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점심 식사를 전해주는 여성의 도안)〉 등의 6개 작품을 당시 절강성 의오(義烏)에 돈벌이를 나간 T를 대신해 진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강산시에서는 3월 8일 국제부인 데이(婦女節)에 즈음에 강산시 부녀 연합회, 강산시 여유국, 강산일보사 주최로 ‘3월 8일 강량산배 여성 명인 여행공예품 디자인대회[“三八”江郎山杯女巧手旅遊工藝品設計大賽]’가 열렸다. 이 대회에 T의 6개 작품이 출품되었고, 다행히도 2등 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을 받기 위해 그녀는 의오에서 강산까지 급히 달려갔는데, 이때 강산시의 부시장 겸 인민대표대회 부주임으



〈사진 2〉 '홍양전통문화, 가송신농촌 전지대회 (弘揚傳統文化, 歌頌新農村)' 영예증서

로부터 직접 격려를 받아 전지 제작을 계속할 뜻을 굳히고 제작 활동에 전념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2007년 3월 국제 부인 데이에 다시 28도진 위원회, 28도진 인민정부 주최로 “전통문화를 발양해 신 농촌을 노래하는” 전지대회[“弘揚傳統

文化, 歌頌新農村”剪紙大賽] (사진 2)가 개최되었고, T는 이 대회에 출전하였다. 이 대회에는 C 등과 같이 예로부터 전지를 좋아하는, 연배가 있는 전지 제작자들도 참가하였으나, 특별히 주목을 받은 이는 젊은 T로 그녀의 작품이 높게 평가받았다. 그녀는 28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전지의 중요한 전승자가 된 것이다.

다만, 2007년 9월 시점에서 T는 아직 본격적인 전지 제작 활동을 개시하지 않았고, 직접 작품을 판매한 경험도 없었다. 그러나 전지 전시회 등을 통해 실적을 쌓아키는 과정에서 그녀는 전지 제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른바 전문적인 전지 작가가 되겠다는 지금까지의 꿈을 현실로,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다. 그녀는 28도 고진 관광 개발과 함께 전지는 앞으로 이 지역의 상품이 될 것을 확신하고, 직업으로서 전지 작가가 성립할 것이라고 믿었다.

T를 둘러싼 상황은 28도 고진 개발이 진전되는 가운데 크게 변화해 갔다. 그녀는 28도진의 중심 초등학교 미술 수업에서 전지 전승을 위해 제작 기법을 가르치는 기회를 진 정부로부터 부여받아, 매일 세 과목의 ‘전지과(剪紙課)’ 수업을 맡아 28도의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전지 교육은 이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진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문화 보호 정책의 일환이며, 그녀 역시 전통문화를 보호한다는 사회적 사명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주된 관심사는 역시 생활의 향상이나 꿈의 실현 같은 사

적인 문제였다.

그 후 T의 전지 제작 활동은 착실히 사회적 인지와 평가를 높여 나가게 되었다. 특히 2008년에는 그녀의 전지 활동이 큰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그녀는 같은 해 1월에 구주시(衢州市) 민간문예가협회²⁴)로부터 ‘구주시 민간문화예술 우수 인재(衢州市民間文化藝術優秀人材)’라는 명예 칭호를 받아 강산시 민간문예가협회 회원이 되었다. 그리고 같은 달, 그간의 열성적인 전지 제작 활동이 인정되어 강산시 문화광전신문(文化廣電新聞) 출판국으로부터 ‘강산시 제1회 문화 모범의 집[江山市首批文化示範戶]’으로 표창을 받았다. 또 그해 6월에는 중국 공산당 구주시 위원회 선전부와 구주시 문화광전신문 출판국이 주최한 ‘구주시 비물질문화유산 대형 전시회’에 출품하여 ‘우수전 연전시상(優秀展演展示賞)’을 받았고, 9월에는 28도진 위원회와 28도진 인민정부가 주최한 ‘28도진 창건 “중국 행복 향촌” 및 제1회 문화예술절 전지 쿵쿨[廿八都鎮創建“中國幸福鄉村”暨首屆文化藝術節剪紙比賽]’에서 <목양녀(양치기 여성의 도안)>라는 작품으로 특등상을 받았다.

이처럼 사회적 직함과 영예를 연달아 빠르게 획득하고 그 평가를 높이면서, 그녀는 자신만의 공방 겸 판매소를 잘 정비된 고진의 거리에 개점하게 되었다. 그녀는 우선 2009년 10월 1일 고진의 심리 거리, 풍계 거리의 경계 부근에 있는 일반 개인의 집을 빌려 전지 가게를 열었다. 그것을 본 강산시 28도 고진여유개발유한공사의 관계자가 자신들의 임차인이 될 것을 권유해, 같은 달 29일 동 공사의 건물로 이전하게 되었다(사진 3). 공사 쪽에서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좋은 소재라며 그녀의 입주를 반겼다. 고진의 관광 개발은

24) 중국 민간문예가협회(中國民間文藝家協會, 약칭 민협)는 중국의 인민단체인 중국문학예술계 연합회(中國文學藝術界聯合會, 약칭 문연)의 단체 회원으로 민간문예와 민간예술, 민속의 조사, 보호, 인재 교육 등에 종사해 왔다. 이 협회는 지방 차원에서도 조직화되어, 중앙·성 차원의 협회에 관해서는 일종의 준 공무원적인 위치가 주어지고, 전담 직원도 배치되어 있다. 지방 차원의 협회에는 그 지방의 지방사가(地方史家)나 지방 문화인이 다수 가입되어 있다. 민협은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 정부 문화부와 협력하고, 때로는 병행하여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부가 관료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에 반해, 중앙의 민협 회원들은 민속학 학위를 가진 전문 가나 대학 교원, 애호가 등이 많다. 중국적인 공공민속학을 전시하는 기관 중 하나이다.

T에게 있어 환영할만한 일이었으며, 현지에서 염원하던 직업과 지위를 얻을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그것은 관광 개발에 관계하는 실무자들에게도 테마파크의 소재를 얻을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그녀의 전지 제작은 개인적인 취미 차원에서 직업적인 민간예술 작가의 창작활동으로 전환되었다.



〈사진 3〉 T의 전지 공방 겸 판매소

5. 고진화에 의한 무형문화유산의 창조: ‘어긋난’ 예술, ‘어긋난’ 예술가

위와 같은 전통의 담당자 및 제작 활동, 그리고 작품에 대한 사회적 인지와 평가의 변화는 그 도안과 작품에 대한 전통 담당자 자신의 해석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미 말한 것처럼 T는 전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당시, 28도에서 전승되어 온 지역적 특징을 가진 도안이 아닌,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도안만 제작하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럴 수밖에 없었

다. 전지와 관련하여 지역 사람들로부터 전승받은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이나 도안집, 전문서적이라는 현대적 미디어를 통해 자학자습하며 중국 일반에 유포되어 있는 범용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이다.

처음엔 가령 <태양월량(太陽月亮, 해와 달의 도안)>, <성체운하(星體雲霞, 천체 운하의 도안)>, <조비접무(鳥飛蝶舞, 새가 날고 나비가 춤추는 도안)>, <모란봉황(牡丹鳳凰, 모란과 봉황의 도안)>, <쌍봉조양(雙鳳朝陽, 봉황과 태양의 도안)>, <용봉정상(龍鳳呈祥, 용과 봉황의 도안)>, <쌍룡희주(雙龍戲珠, 두 마리 용이 구슬을 가지고 노는 도안)>, <희작등매(喜鵲登梅, 매화나무 위에 까치가 있는 도안)>, <금어(金魚, 금붕어 도안)>, <연년유여(連年有餘, 물고기와 연꽃 도안)>, <어자련화(魚子蓮花, 금붕어와 연꽃 도안)>, <원앙희수(鴛鴦戲水, 한 쌍의 원앙이 물에서 노는 도안)>, <만년청(萬年青)>, <홍쌍희(紅雙喜, 쌍희 문자의 도안)>, <단화(團花, 원형 장식에 길상(吉祥) 문자를 배치한 도안)>, <복록수희(福祿壽喜, 길상 문자의 도안)>, <복(福, 길상 문자의 도안)>, 그리고 간지(幹支) 등의 전통적이고도 중국 전지의 일반적인 도안(좋은 운수를 상징하는 도안)을 제작하는 데에 불과했다. 이것들은 여러 가지 텍스트에 있는 작품을 모방한 것으로 학습 단계의 도안이라 할 수 있다. 28도의 지역적 특징이나 전통성과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고진화의 과정에서 그녀는 점점 독자적인 작풍(作風)을 획득해 나갔다.

현재 T의 도안상의 독창성은 28도 지역의 특색 있는 풍경과 문물을 그린 도안에서 발휘되고 있다. 그녀는 28도의 고진 개발 자원으로 떠오른 고건축과 경관, 농촌풍의 생활양식을 디자인으로 전지에 도입함으로써 독자적인 작풍을 획득하였는데, 그 작풍은 28도 전통 전지의 지역적인 특징이 아니라 28도 고진 자체의 지역적 특징과 색깔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고진에서 파빌리온으로 전화(轉化)한 고건축들은 전통 양식으로 관람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녀는 고진 개발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그것들을 전지의 소재로 도입해 피사체로 삼은바, 바로 그게 자기 전지의 특징을 만들어 냈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안교(水安橋), 문창궁(文昌宮), 풍계교(楓溪

橋), 만수궁(萬壽宮), 수성묘(水星廟), 동악궁(東嶽宮) 등과 같은 28도의 고건 축, 나아가 목양녀(牧羊女), 목동 등의 실제 28도와는 관계가 없지만 농촌 이미지를 환기하는 모티프를 도안에 포함하였다. 정부와 공사(公司) 등의 관광업을 진전시키려는 관계자들은 이런 도안을 높이 평가하고, 28도의 지역성을 자아내는 전지 제작자로서 그녀를 자리매김한 것이다.

T는 28도의 지역색을 담은 도안을 고건 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자신이 감각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 어느 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28도 명승지의 광경이 떠올라 그 광경을 도안할 생각이 났다고 한다. 하지만 28도의 명승을 그리는 의미를 그녀는 전략적으로 의식했던 게 분명하다. 28도에는 예부터 ‘풍계 10경(楓溪十景)’이라는 명승지가 존재했다. 거기에는 ‘수안량풍(水安涼風, 수안교 부근의 풍경)’, ‘풍계망월(楓溪望月, 풍계교에서 구경하는 달)’, ‘부개잔설(浮蓋殘雪, 기암(奇巖)이 있는 부개산의 잔설)’, ‘용산목장(龍山牧場, 용산의 말 방목)’, ‘수령청풍(狩嶺晴嵐, 영웅 정성공(鄭成功)이 사냥했다고 전해지는 옛터)’, ‘서장기사(西場騎射, 청대 병사들의 교련장)’, ‘주과초창(珠坡樵唱, 산가(山歌)를 부르는 장소)’, ‘채산화금(採山花錦, 옛날 승려들이 꽃을 심은 장소)’, ‘상정만종(相亭晚鐘, 상정사(相亭寺)의 고적)’, ‘노봉석조(爐峰夕照, 향로산의 저녁 풍경)’의 민간고사에서 따온 명칭이 붙어 있는

데, 그녀는 그것들을 모티프로 도안을 고안해 ‘풍경전지’로서 한 세트로 판매했다. 그중에는 지금은 사라져 버린 풍경도 있는데, 그녀는 그 명승의 양상을 예전 모습을 기억하는 노인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풍경을 상상하기도 하며 도안화하였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지



〈사진 4〉 전지 작품 〈수안교〉

역의 특징을 가진 도안을 만들어 내려고 모색한 것이다. 그 풍경에는 더욱더 지역성을 갖게 하려는 궁리와 변통이 들어 있다. 예를 들어 수안교 아래 흐르는 강에 강산의 특산품인 거위를 배치하여, 강산시의 지방색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사진 4).

한편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T는 이 지역에서 원래 전승되어 왔고 흔히 볼 수 있었던, 지역적 특징이 있는 전통적 도안을 계승하지는 않았다. 28도에서 전지는 선달 그림날이나 춘절, 결혼식 등과 같은 길한 날에 제작해 세간을 장식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약 30년 전까지 혼례의식인 ‘문정(文定, 혼약)’에 즈음하여, 신랑은 신부 집에 ‘저변(豬辺)’이라고 하는 돼지의 반신(半身)을 대(臺) 위에 올려 바치는 의례적 증거를 행하였다. 그 반신 위에 ‘저변화(豬辺花)’라고 불리는 돼지를 본뜬 전지로 장식을 했다. 또 증답품(贈答品)인 물고기에는 ‘어화(魚花)’라는 전지를 장식하였다. 혼수품에는 난초, 매화, 국화, 대나무, 만년청 등 길한 도안의 전지가 붙어 있었다. 춘절에는 창문에 ‘창화’를 장식하고, 떡과 연고(年糕) - 28도에서는 ‘동라고(銅鑼糕)’라고 한다 - 에는 만년청 등을 본뜬 ‘고심화’를, 조상에 바치는 상에는 ‘연반화(年飯花)’를, 그리고 향로에는 만년청이나 난초를 본뜬 ‘향로화(香爐花)’라는 전지를 장식하였다.

그러나 28도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위와 같은 전통적 전지를 장식하는 민속은 T가 전지 제작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쇠퇴하였다. 단지 연장자의 기억 속에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28도에 그러한 전통 전지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전통 도안과 제작 기법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러한 도안을 연장자로부터 배우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 과거 전통 전지의 모티프는 그녀의 작품 속에 적용되지 않았다. 또 그녀를 높이 평가하는 지방 정부와 관광 개발 공사 등 외부 기관들도 그녀가 28도의 지역 전통으로서, 지역적 특징을 가진 전지의 모티프를 배워 제작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오랫동안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전통문화로서의 전지가 아닌, 지역색·지역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새로운 창작 문화로서의 전지를

반기고 있다. 고진화, 게다가 그것과 병행된 비물질문화유산의 보호·활용 과정에서 발견된 비물질문화유산은 일반적으로 문화정책에서 중시되는 ‘진정성’을 가진 지역문화가 아니다. 그것은 ‘참스럽고 올바른 직한’ 창작 문화이다.

T는 더 나아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마스코트인 푸와(福娃)와 디즈니의 미키 마우스 등, 현대적인 캐릭터를 전지로 제작하였다. 그녀는 앞으로 도전해 볼 도안으로 두부 만들기, 솜 타기, 도롱이[蓑] 만들기, 대장간 풍경 등을 뽑았다. 이것들은 28도 고진화에서 전통성을 자아내는 문화 자원으로 활용된 민속이며, 전지와 마찬가지로 관광 자원으로 변모한 지역문화이다. 고진을 개발하는 가운데 객체화한 문화가 전지를 통해 한층 더 객체화한다. 즉 고건축 등과 같이 고진을 대표하는 문화로서 구축된 문화가 전지의 피사체가 됨으로써 재구축되는 것이다.

T는 28도에서 원래 전송되어 온 지역적 특징을 가진 도안을 계승하기보다는, 새롭게 지역성을 지닌 도안을 고안하는 창의적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는 28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니즈를 고려한 것으로 28도의 고진화, 관광화의 과정에서 선택된 전략이었다. 그녀는 관광객의 니즈를 늘 의식하고 수요가 많은 도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어린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현대적인 캐릭터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도 하였다. 더 나아가 관광객들의 구매 의욕을 북돋기 위해 그 자리에서 전지의 시연 제작·시연 판매를 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그녀의 전지 제작은 그 작품뿐만 아니라 기술과 작업공정도 일종의 퍼포먼스로서 28도 고진 문화, 고진 테마파크의 요소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28도 고진화의 진전에 따라 한 여성의 취미였던 전지는 지역의 전통 민간 예술이 되었다. 그리고 고진 개발을 주도하는 관계자들에게 그 가치가 ‘발견’되었다. 그녀가 얻은 전지 ‘명인’으로서의 지위는 그녀 혼자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비물질문화유산을 보호하면서 관광 자원의 핵심 중 하나인 공공 부문의 정책과 명인을 배출하는 포상 시스템의 제도적 뒷받침에 의

해 얻어진 것이다. 그 결과, 한 여성이 단기간에 일반의 전지 애호가에서 전문적인 전지 작가로 변모하였다.

2007년까지 소소한 취미로 제작되고 있었던 T의 전지는 최근 몇 년 사이 고진화와 함께 지역문화를 나타낸 ‘작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작 과정 역시 28도의 지역문화를 표상하는 비물질문화유산의 연행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지역의 비물질문화유산의 계승자, 전승자로 자리매김 됨으로써 사회적인 평가 또한 크게 전환되었다. 다만 이러한 ‘자리매김’은 비물질문화유산의 일반적인 취급에서 보면 상당히 특이한 경우이다. 그것은 디자인과 기술상의 지역적 특징을 가진, 역사적으로 계승되어 온 ‘유산’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문화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치가 발견되어 보호의 대상이 되기 쉬운 전통적 ‘유산’과는 ‘어긋나는’, 새로이 창작된 문화가 비물질문화유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후 T의 인생은 한 번 더 전환을 이루었다. 한때 성공할 듯했던 그녀의 전지 작가로서의 생활은 사실 오래가지 못했다. 필자는 T와 처음 만난 후 5년 뒤인 2012년 28도를 재방문하였으나, 그녀는 이미 28도에 없었다. 결국 그녀의 전지는 그다지 관광객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던 그녀는 출점 후 3년 후인 2011년에 가게를 접고 다시 28도 바깥으로 돈벌이에 나섰다.

6. 나가며

이상과 같이 유네스코를 기점으로 하는 ‘유산’ 개념과 정책, 제도에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응답해 왔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국내용의 중국적인 ‘유산’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졌다. 그것은 유네스코의 ‘유산’을 답습하면서도 정치·경제적인 목적에 따라 변주되었다. 그것은 내셔널리즘과 결부하여 국가 통합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투어리즘과 결합하여 경제개발의 수단이 되

기도 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바, 중국의 경우 그게 극단적이라 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중앙 정부의 ‘유산’ 개념과 제도, 정책은 지방에도 큰 영향을 미쳐 유사한 정책과 제도를 파생시켰다. 이 역시 중앙 정부의 그것들과는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어긋난 경우도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현 상황에 맞게 어긋나게 한 경우도 있다. 또한 그러한 지방의 ‘유산’은 그것을 담당하는 개개인들에 의해서 어긋나기도 한다.

정책과 현장의 어긋남, 불일치성에 대해서는 환경 보전의 문제 등에서 이미 검토되었다. 거기에서도 광범위한 어긋남과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는데, 이는 문화 보호의 현장에 있어서도 완전히 동일하다. 문화 보호 현장에서도 “글로벌한 가치와 로컬한 가치의 어긋남, 지역의 다양한 가치 사이의 어긋남, 제도와 실체의 어긋남, 공공적 목적과 개인 생각의 어긋남 등, 다양한 어긋남이 존재하고 있는 것”²⁵⁾이다.

이 ‘어긋나고 어긋나게 하는’ 상황을 일면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때로는 통치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아실현의 발로를 위한 ‘창조적’ 오독이나 혹은 변수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그 어긋나고 어긋나게 함의 결과로 초래되는 상황 역시 당연히 다면적이다.

유네스코가 전개하는 세계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 등의 문화정책은 ‘문화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관광 등의 경제적인 ‘문화 활용’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아니, 그 문화정책은 수용된 각국에서 변수되어 경제정책이나 지역발전정책으로 재생산된다. 즉 어긋나고 어긋나게 하는 것 정도는 애초에 예견된 일인 것이다. 그것은 인류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25) 宮内泰介, 『なぜ環境保全はうまくいかないのか: 現場から考える「順應的ガバナンス」の可能性』(新泉社, 2013), 321쪽. 사회학자인 미야우치 다이스케[宮内泰介]는 환경 보호를 둘러싼 ‘어긋나고 어긋나게 하는’ 상황을 “어긋남이 있는 건 좋은 것, 어긋남은 보물”이라고 긍정적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그 어긋남을 제대로 인식하고 프레임을 어긋나게 하면서 협동해 앞으로 나아갈 것”을 제창했다. 위의 책, 321쪽.

표로 현실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실용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문화를 ‘전통문화’나 ‘민속’이라는 고리타분한 개념에서 해방시키고 ‘유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자리매김해 어긋나게 함으로써, 그것은 경제·정치·사회적 약자의 생활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문화 자원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산출해냈다. 그러한 ‘유산’ 개념의 유효성을 우선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러한 ‘유산’ 개념이 어긋나고 어긋나게 하면서 산출되는 상황은, ‘유산’ 보호를 읊으면서도 그 유산을 철저히 객체화하고 교란해 버리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비 본질주의적인 문화관에서 보면, 객체화나 교란은 당연한 것이기에 굳이 흠잡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역 전통문화의 객체화나 교란이 전통의 담당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그 삶이 농락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 역시 신중히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세계적으로 찬양되는 ‘유산’ 정책과 제도는 불확실한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와 개인의 상황을 때때로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 불안정한 상황은 그 제도를 만들어 낸 유네스코와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에 의해 충분히 관리, 감독되는 것이 아니다. 유네스코 ‘유산’에 등록되거나 목록에 등재된 안전에 관해서는 그 정책의 사후 조사나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고 해당 ‘유산’의 보존 상태가 확인되고 있지만, 지역 사회나 개인에게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까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물며 유네스코의 직접적인 ‘유산’ 제도가 아닌, 그로 인해 환기·야기·조성·유발·촉발된 국가 차원의, 지방 차원의, 개인 차원의 상황까지는 눈여겨볼 리가 만무하겠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연구자나 정책 입안자가 사전에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 지방과 개인의 생활과 인생을 때때로 요동치게 한다.

물론 유네스코 제도에서 자극을 받고 생겨난 국가적, 지방적, 개인적 현상의 책임을 유네스코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그 현상은 유네스코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 개인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긴밀하게 협동하고, 때때로 공범

이 되는 운동체인 것이다. 문화의 공공정책을 향후 발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산’ 정책의 배후 혹은 그 연장선에서 예기치 않은, 예기치 못한, 그리고 제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해 지역 사람들을 휘말리게 하고, 그 지역과 개인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이에 대해 민감히 반응하며 내성적으로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야말로 ‘유산’ 정책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더 나아가 피드백 함으로써 정책을 수정해 나가는 ‘유산’의 ‘순응적 관리(adaptive management)’²⁶⁾가 요구된다 하겠다.

26) 菅豊, 『文化遺產的適應性管理: 我們該如何應對文化遺產管理(CHM)的不確定性?』, 『中國藝術時空』 2019年 第3期(中國藝術研究院, 2019), 51~59쪽.

■ 참고문헌

1. 논문 및 단행본

- 菅豊, 『文化遺産時代の民俗學: 『間違った二元論(mistaken dichotomy)』を乗り越える』, 『日本民俗學』 279, 日本民俗學會, 2014.
- _____, 『文化遺産的適應性管理: 我們該如何應對文化遺産管理(CHM)的不確定性?』, 『中國藝術時空』 2019年 第3期, 中國藝術研究院, 2019.
- 宮内泰介, 『なぜ環境保全はうまくいかないのか: 現場から考える『順應的ガバナンス』の可能性』, 新泉社, 2013.
- 孫安軍, 『《歷史文化名城名鎮名村保護條例》實施的研究』, 『中國名城』 2010年 第5期, 揚州市人民政府, 2005.
- 葉濤, 『中國民俗學會と中國無形文化遺産の業務』, 『日本民俗學』 279, 日本民俗學會, 2014.
- 鄭巨欣, 『浙江民間剪紙史』, 杭州出版社, 2013.
- 周星, 『現代中國社會における古村鎮の『再發見』』, 『愛知大學國際問題研究所紀要』 138, 愛知大學國際問題研究所, 2011.
- 陳勤建, 『民俗學者と現代中國の無形文化遺産保護』, 『日本民俗學』 279, 日本民俗學會, 2014.
- 蔡恭·祝龍光主編, 『廿八都鎮志』, 中央文史出版社, 2007.
- 七海ゆみ子, 『無形文化遺産とは何か: 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産を新たな視點で解説する本』, 彩流社, 2012.

2. 인터넷 자료

-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http://www.gov.cn/gongbao/content/2006/content_185117.html, 2014.8.31. 접속)
-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http://www.gov.cn/flfg/2008-04/29/content_957342.html, 2014.8.31. 접속)
- 文化廳文化遺産オンライン(http://bunka.nii.ac.jp/jp/world/h_13_2A.html, 2014.8.31. 접속)

The Conflict between Cultural Heritage Policies and Everyday Reality in China

– from UNESCO to tradition bearers –

Suga, Yutaka*

China has been the country that has most actively embraced and most strategically used the idea and system of cultural heritage created by UNESCO. The Chinese government takes great interest in UNESCO's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World Heritag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ddition, it has developed internal policies for the protection and use of cultural heritage.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Chinese government's response has not been entirely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envisioned by UNESCO and the institutions it has designed. This has led to a misalignment in various aspect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and the general public in China have taken various actions in response to the policies developed in response to UNESCO's cultural heritage movement. This also caused a gap not only between UNESCO's cultural heritage policy, but also the Chinese government's cultural heritage policy.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policy, there were cases of natural discrepancy, and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cases of deliberate discrepancy by policymakers.

Cultural heritage policies have created an uncertain socio-cultural situation in various regions of China.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predict in advance the

* Tokyo University

impact of cultural policies in a region, because the changes in the situation created by cultural policies can deviate from the assumptions made at the time of cultural policy formulation. This paper discusses the gap between the philosophy and reality of cultural heritage policy in China and the resulting impact on local residents.

[Keywords] China,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ultural policy, uncertainty, discrepancy

이 논문은 2022년 1월 23일 투고되어,
2022년 2월 16일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2022년 2월 23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